



길림성 올 음력설 기간 문화관광소비 '좋은 출발'

국내 관광객 연인원 2,770 만 6,800 명 접대, 관광객 총소비액 337 억 5,500 만원



2025년 음력설 연휴 기간 길림성 문화관광시장 운영 상황이 공개되었다. 연휴상무 빅데이터의 추산에 따르면 음력설 기간 전 성적으로 연인원 2,770 만 6,800 명의 국내 관광객을 접대, 관광 총소비액이 337 억 5,500 만 원에 달했다.

빙설경제 지속적으로 열기

음력설 연휴 기간 전 성 여러 대형 스키장, 빙설관광풍경구는 새로운 고객층을 고봉을 맞이하여 빙설경제의 전반 사슬이 뜨거워지도록 이끌었다. 장춘빙설신천지는 관광객 접대와 영업수입이 각각 동기 대비 89.8%, 170.8% 증가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음력설 황금연휴 기간 스키 코스 길이가 전국 10 위권에 드는 스키장들에 길림성의 세곳이 선정되었는데 북대호스키리조트가 전국 1위, 통화만봉스키장과 만과송화호스키장이 각각 6위와 7위를 차지했다.

북대호스키리조트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국제빙설러닝 스노보드 장애물 월드컵(중구역) 경기를 주관하여 무적 관광객 접대, 영업수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와 15% 증가했다. 2월 2일 하루 접대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휴양지내 중점호텔은 선달그믐날부터 초닷새까지 6일 연속 만원이었으며 평균 투숙률이 92%에 달했다. 만과송화호휴양지의 관광객 접대와 영업수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1%, 35.3% 증가했다. 도가플래트홈(途家平台) 데이터에 따르면 장춘시 민박 예약량은 1배, 길림시 민박 예약량은 80% 증가했다. 길러(吉旅)만봉통화스키휴양지 중점호텔의 평균 입주율은 85%에 달했고 오주완강호텔, 홀리데이호텔, 록명온천, 관산아파트는 연속 5일간 만원이었다.

장백산만달국제휴양지 중점호텔의 평균 입주율은 80.1%에 달했다. '송화강상·설곡시장'은 연인수로 29만 4,000 명의 관광객을 접대하여 7,166 만원의 소비를 이끌었다. 연휴 내내 산촌은 일평균 약 2,000 명의 관광객을 접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민박 입주율은 98%에 달했다. 화룡 로리커호풍경구의 관광객 접대량은 전년 동기 대비 89.8% 증가했다.

문화관광의 소비 활력 분출

음력설 기간 성문화관광정이 은련운플래시페어와 연합하여 전개한 2024-2025 빙설소비권, 설박회 소비권 활동에서 새로 증가된 등록사용자가 약 5만명에 달했으며 소비권 8만장을 발급해 3,100 만원의 소비를 이끌었는데 스키장, 관광지, 요식, 숙박, 쇼핑 등 업체의 80여개 문화관광기업들에 혜택을 주었다. 씨트립 플래트홈의 데이터가 보여준 데 따르면 음력설 기간 우리 성의 국내 관광 주문

량을 동기 대비 560% 늘어났으며 주요 지역 원천지에는 상해, 항주, 광주, 북경, 심수 등지가 포함되었다. 동정려행 수치가 보여준 데 따르면 음력설 기간 장춘, 연변 등 전통 인기 빙설관광목적지가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고 장백산관광지가 음력설 전국 인기관광지 순위 10 위권에 진입하여 안도현과 무송현이 각각 취나얼넷(去哪儿网) 전국 현성 호텔 예약량의 1위와 3위에 올랐다.



접인 고구려풍경구의 관광객 접대량은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장춘 정월담풍경구는 연인수로 5만 2,200 명의 관광객을 접대하였다. 길림시 북산풍경구는 연인수로 41만 4,500 명의 관광객을 접대하였다. 룡정산문화관광구는 연인수로 23만명의 관광객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열동료원환락회(悦动辽源欢乐荟)는 연인수로 7만 8,000 명의 관광

객을 접대했다. 료원동식물원은 연인수로 4만 4,000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다. 매하구 지복촌은 연인수로 8만 6,000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다.

무형문화재 설 분위기 짙어

음력설 기간, '무형문화재로 새봄을 맞이하고 문맥으로 중화를 노래하다—길림 무형문화재 설쇠기(非贺新春 文脉颂中华—吉林非遗过大年) 계열 활동 및 무형문화재 전시활동들은 전 성 인민과 전국 관광객들이 함께 첫 '무형문화재편' 음력설을 즐겁게 보내게 했다. 전 성 도서관, 문화관(역)은 493 회의 대중문화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연인수로 59만 7,200 명이 참여하였다. 전 성 박물관은 각종 활동을 171 회 조직하여 연인수로 36만 300 명의 관중을 접대하였다. 성박물관은 '을사년 뱀해 새봄 민속체험활동'(乙巳蛇年新春民俗体验活动)을 개최하여 연인수로 2만 8,700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다. 성자연박물관은 '무형문화재 음력설 전자 연학 체험' 활동을 출범시켜 연인수로 1만 300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다. 위만항공박물관은 새봄 무형문화재 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연인수로 6만 1,200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다.

차간호관광지는 빙폭려박, 설곡기연, 가미솜뿔, 철화놀이, 불꽃쇼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겨울포화 무형문화재문화를 전시하여 연인원 4만 6,200 명의 관광객을 접대하였는데 동기 대비 24.1% 증가하였다.

장춘세계조각원은 무형문화재 꽃등, 국조예술, 빙설광영 등 원소를 통해 전통기예와 현대과학기술을 융합시켜 새로운 아간빙설관광체계를 만들어 연인수로 2만 3,100 명의 관광객을 접대, 관광객이 동기 대비 153.7% 성장했다.

통화 룡흥리는 다양한 무형문화재 활동들을 폭넓게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14만 6,000 명의 관광객을 접대하였다. 연휴는 '무형문화재로 새봄 맞이—연변에서 설쇠기' 계열 활동을 개최하였는데 활동은 전반 음력설 연휴 기간을 관통했고 30 개 계열 활동들이 전 주 8 개 현(시) 들에서 폭넓게 펼쳐졌다.

/ 길림발부

최대 1 만 5,000 원! 길림성 집장식 소비보조금 발급

2월 5일, 길림성상무청은 소비보조금 발급 관련 소식을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2025년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품 보상판매 정책을 힘써 실시할 데 관한 통지>(발개환자(发改环资)[2025]13호) 정신을 관철 실시하고 <2025년 실내장식 재료와 주방, 화장실 용품 '갱신' 사업을 잘할 데 관한 상무부 등 6개 부문 판공청의 통지>(상반소비함(商办消费函)[2025]29호) 요구에 따라 길림성 2025년 실내장식 재료와 주방, 화장실 용품 '갱신' 사업을 잘할 데 해 다음과 같은 실시제책(이하 '세칙')을 제정한다. 해당 '세칙'은 인쇄발부해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되며 구제 활동 전개 시 간은 각 시(주)에서 해당 시간 범위 내에서 실제와 결부해 자체로 정한다. 보조는 료석, 지능화에 중점을 두며 소비자의 낡은 주택 장식과 주방 용품, 화장실 용품 개조에 쓰이는 물품과 재료 구입을 보조 범위에 넣어 지능가구 소비를 촉진한다. 보조 범위에는 장식재료, 문, 창문, 타일, 바닥, 천장장식, 벽지와 위생

실 도구, 변기, 욕조, 싱크대 그리고 가구, 조명, 소파, 식탁, 옷장, 책장, 커튼 등과 지능열쇠, 가정용 감시카메라, 안마의자, 가정용 지능 시스템 등이 망라된다. 길림성에서 본 '세칙'에 명시된 보조금 범위내의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소비자는 각 시(주)의 제품 종류별로 1건(회)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 이미 실내장식 주방, 화장실 용품 보조금을 받은 적 있는 개인소비자들도 2025년에 같은 유형의 제품을 구매할 때 계속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기준은 개인소비자가 활동에 참여하는 경영업체에서 보조금 범위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실제 제품 판매가격(모든 우대 및 할인 제외)의 15%를 지원한다. 1급 이상의 에너지 효율 또는 물 효율 표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실제 판매가격의 20%를 지원한다.(에너지 소모가 다른 류사 제품은 별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중 각 제품의 보조금은 2,000 원을 넘지 않으며 각 소비자의 루적 보조금은 최대 1만 5,000 원이다.

/ 길림성상무청

음력설 연휴 국내 출행자수 연인원 5.01 억명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음력설 연휴 기간 문화관광시장은 평안하고 질서가 있었다. 문화관광부 데이터 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설 연휴 8일 동안 국내 출행자수는 연인원 5.01 억명으로 동기 대비 5.9% 성장하고 국내 출행 총소비는 6770.02 억원으로 동기 대비 7.0% 성장했다.

음력설 연휴 기간 각지는 모회, 사자춤, 영가무, 룡무 등 명절활동을 기획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유치했다. 박물관이 인기 있는 선택지로 되었는바 고궁박물관, 섬서력

사박물관, 삼성추박물관 등의 방문객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빙설관광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었는바 야부리, 알파이 등 국가급 스키관광리조트의 인기가 상승하고 호북, 강서, 절강 등 지역의 빙설항목도 남방의 겨울철 관광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임경관광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해 새해 등불축제, 무형문화유산 전시, 전통극 공연 등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을 경험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 신화사

올해 정월대보름달 15일에 가장 둥글어

2월 12일은 정월대보름으로 뱀해 첫 달맞이 시각은 보름 당일인 21시 53분에 나타난다.

보름달은 음력 15일이나 16일에 나타나며 어떤 달은 17일이나 14일에도 나타난다. 통계에 따르면 보름달은 음력 16일에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름달은 16일에 둥글다."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올해 정월대보름에는 '보름달이 15일에 둥그'는바 정월 15일 당일 21시 53분에 뱀해의 첫 달맞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소개에 의하면 매년 정월대보름달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여전히 정월 15일 당일이라고 한다. 2027년, 2028년과 2030년의 태양에 의해 밝아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달 동안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 위치가 규칙적으로 변하

고 월상도 그에 따라 변한다. 달의 이러한 손의 변화 주기를 삭망주기라고 하며 평균 시간은 29.53일이다. 음력 달력에 따르면 삭(朔)이 있는 날은 매일 초하루이다. 달은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가 타원형이기 때문에 지구와 가까울 때는 속도가 더 빠르고 지구에서 멀 때는 속도가 더 느리다. 이로 인해 달이 가장 둥근 순간 '망(望)'이 나타나는 시간도 차이가 난다.

소개에 의하면 매년 정월대보름달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여전히 정월 15일 당일이라고 한다. 2027년, 2028년과 2030년의 태양에 의해 밝아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달 동안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 위치가 규칙적으로 변하

/ 인민넷

2025 신춘민족가요제 특별공연 원만히 마무리



장춘시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주관한 '2025 신춘민족가요제 특별공연'이 2월 3일과 4일, 장춘농박원과 장춘신천지소평공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며 장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민족 특색이 짙은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장춘시당위 14기 7차 전원회의 중요한 배치를 실행하며 장춘시 빙설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즐겁고 평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펼쳐진 이번 가요제의 두차례 공연

에는 특별 요청으로 참가한 연길시음악협회의 가수들과 장춘시의 우수한 소수민족 가수들이 한데 모여 수준 높은 공연으로 새해의 축복을 전하고 민족단결을 노래했다.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의 리상호, 리우수, 김소령 가수와 장춘영화제작

소악단의 방미화가수 그리고 연길시음악협회의 흥해, 류철석, 김향란 가수는 <붉은 해 변경 비추네>, <막걸리 한잔>, <강원도 아리랑>, <고무줄 인생>, <장교야 울러라>, <멋진 인생>, <제비가 돌아왔네> 등 노래로 조선족의 흥과 가락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었다. 한족 가수 해방(解放)과 두쌍(杜双)은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과 <지지 않는 태양> 등 노래로 고향산천의 아름다움을 전했으며 몽골족 가수 더룡의 <권주가>는 관중들을 드넓은 초원으로 이끌었다. 만족 가수 신유와 리명준은 <가득찬 향기>와 <나와 나의 조국> 등 노래로 민족의 민속풍정과 조국에 대한 민족인민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공연장은 관중들의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뜨거운 분위기였다. 공연을 관람한 관중들은 이번 민족가요제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짙은 명절 분위기와 민족단결의 두터운 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 시 디스크 정리 / 사진 김명결

영상시

별이 가는 길에



작사 : 방준 량송 : 리명

